

수출화물 특성 변화에 따른 무역관문의 차별적 성장과 수출 기업의 공간분포 변화

이정윤(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leejiy@krihs.re.kr)

글로벌 체제하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경제통합은 다양한 지리적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국가)간 화물유동 규모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간상에서 화물이 이동하는 현상은 경제활동 분석에 매우 적절한 연구대상이나, 아쉽게도 지리학에서는 아직 상당부분 연구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그동안 경제활동의 세계화 또는 지역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물의 지역(국가)간 유동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교통지리 분야에서도 그 주된 연구 대상은 화물이 아닌 사람의 이동이었다. 이는 지리학에서 다양한 화물유동 연구방법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는데, 오늘날 급속히 증가하는 화물유동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관점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국제)화물유동 패턴의 특징과 수출 기업의 공간분포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의 하나로 최근 물류 관련 연구에서 가장 폭넓게 수용되는 공급사슬(supply chain) 개념에 '거리(距離)'라는 공간적 요소를 적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공급사슬에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들(elements)이 창출하는 가치(효율성)가 전체 사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각 구성요소별 효율성(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이 개념에서 공간적 함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최근 Robinson(2002)은 항만 자체를 공급사슬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독립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함을 주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문(항만 또는 공항) 자체보다는 국제 화물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관문과 수출기업이 입지한 배후지까지의 '거리'를 공급사슬의 구성요소로 보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관문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배후지의 수출기업 분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전통 제조업의 해외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력 수출품목의 특성과 구성 비율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수출입 화물의 '중량대비 단가'와 '항공운송 부담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저중량-고부가가치 수출품의 증가는 항공화물 수출 비중의 증가로 이어져, 이는 결국 무역 관문의 상대적 지위 및 전체 관문체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20세기 이래 줄곧 우리나라 최대 무역 관문이었던 부산항이 최근 그 자리를 인천공항에 내준 것은 이런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위 관문(인천공항)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항공화물의 특성은 과거 주로 부산으로 향하던 수출 화물의 내륙유동 방향과 운송거리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제교역 화물가치의 상승, 그리고 향후 보다 많은 항공 수요가 예상되는 역내 교역 환경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 변화로 수출화물의 특성과 그 구성 비율이 변하면, 이는 무역관문의 차별적 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배후지 수출산업의 공간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항공과 해운

을 동시에 활용하는 수출품목(HS 4단위 1,186개) 중, 각 운송수단을 대표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시·군별 수출규모와 수출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간경과에 따라 대상 품목의 수출규모와 업체 수는 모두 주로 이용하는 관문 인근 지역으로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처럼 해당 수출산업이 관문 인근 지역에 수렴(收斂)하는 현상은, 관문과 가까운 거리로 인해 운송비·운송시간 등이 절감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관문에서 멀리 떨어진 수출 기업일수록 향후 치열한 국제교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화물 특성의 변화로 무역 관문이 차별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관문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출 기업의 분포가 변화하는 현실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공간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준다. 거리와 운송비를 근간으로 삼았던 고전 입지이론이 모든 (기업)입지 행태를 설명하지 못하였듯이, 수출 기업의 분포 변화를 관문으로부터의 거리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지리적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그로 인한 화물유동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한 오늘날, 거리를 매개로 한 공간적 관점의 분석은 화물유동과 산업공간의 변화를 해석하는 하나의 유용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